

사회이슈에 대한 온라인 공간 속 청소년의 의견표명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전자배**

초 록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1,26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은 사회이슈에 대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경향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이슈에 대해 지식이 많을수록, 친구와 사회이슈에 관한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교실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된다고 인지하는 청소년일수록 온라인 공간 속에서 사회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외 단체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사회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에 청소년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하여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실제적인 교육적 방안이 실행되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안전한 공론장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외 단체활동 참여가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유의미한 통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에의 청소년 참여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는 민주사회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함께 오고가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민주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의견표명, 사회이슈, 온라인 공간, 청소년 참여, 시민교육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강사, jb0317@snu.ac.kr

I. 서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정치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사회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은 사회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이끌었다. 그 외에도 선거권, 노동, 다문화, 스쿨미투, 한일관계 등 우리 사회 속의 여러 이슈에 대해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청소년 참여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는 청소년들이 사회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사회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실 속 청소년들의 모습은 마스크에서 비치는 역동적인 청소년들의 모습과 유사할까?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청소년은 사회이슈에 대하여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윤경, 이승연, 2015; 오연주, 2010, 2012). IEA에서 진행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The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16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수준은 24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장근영 외, 2018). ICCS 2016에 참여한 전체 국가들의 평균 점수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상당한 수준의 시민적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도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교실 속에서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어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민주사회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사회의 방향이 움직인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자유로운 의견의 제시는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시민적 행동이다. 본 연구는 사회이슈에 대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표명 행동을 돕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단위의 표본데이터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네

이티브 세대로 평가받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양상에 주목하였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출현한 온라인 공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공론장으로 평가되고 있다(나은경, 2007).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을 토대로, 온라인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행동을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행동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공간의 확장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방향이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모여 결정된다. Tocqueville(1997)은 19세기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가 공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시민들의 의사소통 참여를 강조한다. 이러한 공적 의사소통의 강조는 청소년 참여의 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 참여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Hart, 1997) 또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의사결정에 청소년이 관여하는 과정(Checkoway & Gutierrez, 2006)으로 정의된다. 공통적으로 청소년 참여의 정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영인, 2017).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등장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9)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사회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대 청소년들은 지난 1년간 뉴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으로 인터넷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37.4%), 뉴스 기사에 ‘좋아요’ 등 공감을 표시하고(37.0%), 댓글을 직접 작성하거나(19.5%), 댓글에 공감을 표시해 본 적 있다고(27.6%) 응답하였다. 이처럼 사회이슈에 대한 온라인 공간 속 의견표명 행동은 뉴스와 댓글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뉴스를 전달하는 소극적인 형태부터 자신의 의견을 댓글의 형태로 직접 게시하는 적극적인 형태까지 다양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견표명 행동은 첫째,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개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면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실시간으로 광범위한 대상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포털, SNS 등의 인터넷 서비스는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김동윤, 김위근, 조민규, 2015). 이에 정치가나 정책 입안자들도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특징을 활용하여, 정치 홍보 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한다. 둘째,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공간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용이하다. 익명성이 존재하기에 온라인 공간은 대면 상황에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의 의견을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koric et al., 2009). 소수의견일지라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고립의 위험을 대면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및 정보의 교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가 주창한 공론장의 현실적 구현을 기대하기도 하였다(나은경, 2007). 하지만, 상반된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온라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네티즌이라는 가상의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 허윤철과 박홍원(2018)은 TV를 통한 공적 이슈 접촉이 개인의 의견표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견표명 행동을 대면과 온라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온라인 공간보다 오히려 대면 상황에서 더욱 활발한 의견표명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그 원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온라인 공간의 특징을 지적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했을 때 그 파급력으로 인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흔적이 영속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면 상황에서 오히려 의견표명에 대한 부담

이 적다고 보았다. 이처럼 의견표명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공간이 더욱 자유로운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논의 장소가 온라인 공간의 출현과 함께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혜경(2010)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상보적인 관계를 주장한다. SNS의 역할에 주목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이슈에 관한 대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트위터 공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과 사회이슈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과 연계되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교류되는 논의의 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대화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된다(Habermas, 2001). 사회이슈에 대해 고민하며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다양한 주장이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은 더욱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2. 사회이슈에 관한 의견표명 행동에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의견표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지적 영역, 커뮤니케이션 영역, 참여활동 영역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의 요인은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영역과 참여활동 영역의 요인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의 영향력과 관련된다.

우선, 인지적 영역의 변인은 사회이슈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관여와 관련된다. Dalton(2002)의 인지적 관여 모형(the cognitive engagement model)에서는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에 주목한다. 정치지식, 정치관심, 미디어접촉, 교육수준 등이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을수록, 미디어를 통해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를 접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개인의 참여가 증가한다(Pattie, Seyd & Whiteley, 2004). 이 모형의 틀을 빌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변인으로 이슈관심과 이슈지식 변인을 선정하였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변인은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회이슈에 관한 대화와 연관된 변인을 포함한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로 정치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주환, 2001; Kim, Wyatt & Kats, 1999). 선행연구를 토대로 박정서(2012)는 정치대화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일정한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숙의적 성격의 대화로 정치 토론(political discussion)과 정치 담화(political talk) 등으로도 불린다. 이와 같은 형식적 대화에서는 의견의 불일치와 이로 인한 논쟁이 존재하며,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기초로 진행되는 비형식적 대화(informal political conversation)이다. 사교적 대화(sociable talk), 일상적 대화(casual talk) 등으로도 불린다. 이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첫 번째의 형식적 대화와는 달리 사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형식적 대화는 교실에서 교사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며, 부모나 친구와는 비형식적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변인으로 부모대화, 친구대화, 교실개방성을 선정하였다. 부모 대화와 친구대화 변인은 사회이슈에 관해 그들과 대화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교실개방성 변인에서는 사회이슈를 소재로 한 대화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았다. ICCS 2016 결과에 따르면, 교실 내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사회이슈에 대한 시민 참여 의지가 증가하였다(장근영 외, 2018). 학급 내에서 사회이슈에 관한 대화가 진행되는 맥락적 분위기를 살피고자, 본 연구에서는 교실개방성을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셋째, 참여활동 영역은 교내외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활동과 관련된 변인들이 해당한다. 청소년의 시민참여를 추구하는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접근법에서는 교내외에서 운영되는 참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참여활동은 청소년들이 건설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constructive use of time)의 하나로, PYD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외적 자원(external assets)에 해당한다(Sherroed, Torney-Purta & Flanagan, 2010). 청소년들의 시민적 역량 발달을 위해서는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회 참여와 연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

기되면서 참여활동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Sherrod, Flanagan & Youniss, 2002). 청소년들은 참여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집단 속에서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 나은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 아래 조직된 참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시민적 효능감, 시민적 책임감 등을 함양하는 경험을 제공한다(Sherrod, Flanagan & Youniss,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 활동 영역의 변인으로 교내 참여활동은 학생회와 동아리, 교외 참여활동으로는 다양한 목적 하에 설립된 단체활동들의 참여 여부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민주사회의 시민인 청소년의 모습에 주목하며,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우선,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양상이 어떠한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양상이 오프라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공간 속 청소년들의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2018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었으며, 17개 시도에서 층화집락표집을 통해 추출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077명(초 2,866명, 중 2,645명, 고 3,536명, 대 1,03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청소년 역량은 크게 다섯 가지(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로 구분되며, 설문지는 각 역량 및 행동 수준을 측정하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현장의 조사 시간과 학생들의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여, 이 연구의 설문지는 다섯 가지 유형(A-E)으로 제작되었다. 응답자들은 다섯 가지 유형의 설문지 중 하나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받게 되며, 개별 설문지는 다섯 가

지 역량에 대한 문항이 모두 수록된 것이 아니라, 그중 두 가지 역량에 대한 문항만을 포함한다(순환배분방식)(장근영 외, 2018).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인은 사회참여 역량, 대인관계역량 문항에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유형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추출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변인인 교내외 참여활동(학생회, 동아리, 단체 활동)의 영향력을 엄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다.

2. 연구 변인

1)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크게 인지적 영역, 커뮤니케이션 영역, 참여활동 영역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지적 영역의 변인으로 이슈관심과 이슈지식이 포함된다. 이슈관심은 국내외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관심 정도를 묻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관심없음’, ‘관심없음’,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0.822이었으며, 문항 점수는 평균하였다. 이슈지식은 이슈에 대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두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0.799이었으며,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변인은 부모대화, 친구대화, 교실개방성이 포함된다. 부모 대화와 친구 대화는 국내외의 사회이슈에 대해서 부모 또는 친구와 대화하는 정도를 묻는 두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며, ‘전혀 하지 않는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한번’, ‘거의 매일’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부모대화 0.851, 친구대화 0.873이었다.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교실개방성은 교실에서 사회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정도와 그 분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묻는 네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일어나지 않음’, ‘거의 일어나지 않음’, ‘가끔 일어남’, ‘자주 일어남’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0.784였다.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참여활동 영역의 변인은 크게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구분하였다. 교내 참여활동 변인은 설문이 진행된 현재를 기준으로

학생회, 동아리 활동여부를 물어보았다. 교외 단체활동은 청소년 단체(보이/걸스카우트, YMCA 등) 뿐만 아니라 정치, 환경, 인권, 봉사 등 다양한 목적 하에 설립된 청소년 단체활동을 포괄한다. 과거와 현재에 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에 따라 변인을 이분하였 으며, 참여 여부에 따라 변인을 더미 처리(참여=1)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 종속변인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행동에 주목한다. 온라인 공간의 의견표명 행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사회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정도,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정도 를 묻는 두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한번’, ‘거의 매일’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견표명 변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0.893이었다.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분석에 활용한 문항

영역	변수명	문항 번호	내용	
독립 변인	인지	이슈 관심	BQ2A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
			BQ2A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
			BQ2A3	환경 관련 이슈
			BQ12A1	다른 나라들의 정치 사회적 문제
			BQ12A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커뮤니케이션	부모 대화	BQ3A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BQ3A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교실 개방성	BQ14A1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주제로 부모님과 이야기 한다
			BQ14A3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 한다
			친구 대화	BQ14A2
BQ14A4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한다			
		BQ8A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BQ8A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BQ8A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BQ8A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영역	변수명	문항 번호	내용
참여 활동	학생회	EQ11_1_1	학생회
	동아리	EQ11_2_1	동아리
	교외 단체 활동	BQ15A1~6	1)청소년 정치참여 단체 2)환경운동 단체나 조직 3)인권운동 단체 4)자원봉사나 기부 단체 5)동물복지 및 동물권리 운동 단체 6)청소년단체활동(보이/걸스카우트, YMCA 등)
종 속 변 인	의견 표명	BQ14A5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 의견을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다
		BQ14A6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그것에 대한 내 의견을 제시한다
통 제 변 인	성별	DM6	성별(1=남자)
	나이	QQ1	2018-출생연도+1
	학업성적	QQ3_1	중간고사 점수
	경제수준	QQ4	가정의 경제 수준
	모학력	QQ5_2	어머니의 최종 학력
	친 화 성	EQ1A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망설임 없이 소개한다
EQ1A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 하기도 한다	
EQ1A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모학력, 친화성을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친화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친화성에 따라 불특정 다수 앞에서의 의견표명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친화성 변인은 세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0.808이었으며,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별은 더미 처리(남성=1)하였고, 나머지 변인은 연속변인으로 처리하였다.

3. 분석 방법

우선,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변인들의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행동이 오프라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활용하여 온라인 의견표명 행동에 따라 분석 대상자들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행동경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표준화계수치를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 ver.23을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 1,26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표 2 참조). 학교급 구성은 중학생이 577명(45.5%), 고등학생은 690명(54.4%)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16.7세였다.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각각 2.71점, 2.40점으로 중간값(2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부모대화(2.17점)는 중간값 이상이었으나 친구대화(1.78점)는 그 이하로, 사회이슈에 대해 친구에 비해 부모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교실개방성은 2.38점으로, 청소년들은 사회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정도와 그 분위기가 중간 정도의 개방성을 가진다고 인식하였다. 교내에서 운영되는 학생회와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각각 225명(18.0%), 1041명(82.5%)이며, 교외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824명(65.1%)이었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관심,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2
분석 대상자의 특성

영역	구분	빈도(명)	비율(%)	영역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655	51.8	학교급	중학생	577	45.5
	여자	611	48.2		고등학생	690	54.4
					(나이 평균: 16.7)		
학업 성적	~60점	277	21.9	모학력	중졸	13	1.3
	~80점	460	36.3		고졸	499	50.7
	~90점	299	23.6		대졸	415	42.2
	~100점	230	18.2		대학원졸	58	5.9
영역	구분	평균	표준편차	영역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이슈관심			2.71	0.58	부모대화	2.17	0.83
					친구대화	1.78	0.78
이슈지식			2.40	0.67	교실개방성	2.38	0.65
영역	구분	빈도(명)	비율(%)	영역	구분	빈도(명)	비율(%)
학생회	참여	225	18.0	교외 단체 활동	참여	824	65.1
	미참여	1025	82.0				
동아리	참여	1041	82.5		미참여	442	34.9
	미참여	220	17.5				

2.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표명 행동 양상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이슈에 대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지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71.4%(903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 의견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전혀 게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뒤이어 17.3%(219명)는 최소 한 달에 한번, 7.8%(98명)는 최소 일주일 한번, 3.5%(44명)는 거의 매일 자신의 의견을 온라인에 게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타인의 게시글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하는지 물어보았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혀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도 829명(65.4%)에 달했다. 20.4%(258명)는 최소 한 달에 한번, 10.5%(133명)는 최소 일주일에 한번,

3.7%(46명)는 거의 매일 피드백을 작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11.3%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14.2%의 청소년들은 타인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다수의 청소년은 사회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의 개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 대상자들의 행동을 살펴보고자,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유형화하였다. 도출된 군집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들은 두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1>은 1,091명(86.2%), <군집 2>는 174명(13.8%)이 해당한다. <군집 1>은 온라인 공간에서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군집 2>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군집 1>은 소극 표명집단, <군집2>는 적극 표명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유형별로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행동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 참조). 종속변인으로는 이슈대화 변인을 투입하였다. 이슈대화 변인은 부모대화와 친구대화 변인의 평균값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온라인에서의 소극 표명집단은 적극 표명집단에 비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사회이슈를 소재로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또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t = -18.991, df = 228.216, p < .001$).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이슈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반응하던 청소년들의 모습은 오프라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3
유형에 따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이슈대화 차이분석

유형	오프라인에서의 이슈대화 행동						
	빈도(명)	비율(%)	평균	표준편차	t	df	p
소극 표명집단	1,091	86.2	2.05	0.78	-18.991	228.216	0.000***
적극 표명집단	174	13.8	2.93	0.70			

* $p < .05$, ** $p < .01$, *** $p < .001$

3. 청소년의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요인

사회이슈에 대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간 상관계수는 0.7 이하이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uence factor, VIF)는 10보다 작아 본 연구모형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을 위해 일괄투입(enter) 방식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공간 속 청소년들의 공개적 의견표명 행동을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설정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6.8%이며, 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2=0.368$,

표 4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 (N=1,266)

변인	b	표준오차	β	t	p	공차	VIF
이슈관심	-0.034	0.049	-0.026	-0.696	0.486	0.469	2.131
이슈지식	0.169	0.042	0.15	4.035	0.000***	0.48	2.082
부모대화	0.083	0.032	0.09	2.579	0.010*	0.542	1.845
친구대화	0.444	0.034	0.451	13.258	0.000***	0.572	1.749
교실개방성	0.091	0.033	0.077	2.746	0.006**	0.835	1.197
학생회	0.014	0.052	0.007	0.258	0.796	0.957	1.045
동아리	-0.006	0.053	-0.003	-0.112	0.911	0.949	1.054
교외 단체활동	0.093	0.043	0.058	2.175	0.030*	0.931	1.074
성별(남자=1)	0.02	0.04	0.013	0.503	0.615	0.977	1.024
나이	-0.048	0.013	-0.106	-3.818	0.000***	0.853	1.173
학업성적	-0.015	0.008	-0.053	-1.899	0.058	0.846	1.182
경제수준	0	0.019	0.001	0.022	0.983	0.894	1.118
모학력	0.005	0.02	0.007	0.252	0.801	0.865	1.156
친화성	-0.007	0.031	-0.006	-0.231	0.817	0.915	1.093
(상수)	0.769	0.274		2.802	0.005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07	0.368	0.359	0.612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회귀모형	208.343	14	14.882	39.783	.000***
잔차	357.416	955	0.374		
전체	565.759	969			

* $p<.05$, ** $p<.01$, *** $p<.001$

$F=39.783, p<.001$). 분석 결과, $\alpha=.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은 이슈지식, 부모 대화, 친구대화, 교실개방성, 교외 단체활동과 나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t=4.035, p<.001$), 부모,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 사회이슈에 대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며(부모대화 $t=2.579, p<.05$; 친구대화 $t=13.258, p<.001$), 교실 내에서 사회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t=2.746, p<.01$), 교외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t=2.175, p<.01$)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t=-3.818, p<.001$) 청소년들은 사회이슈에 대해 더욱 소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참여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시작되었다. 사회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표명 행동양상 및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시민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본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실제적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천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86.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사회이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극적인 모습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이어졌다($t=-18.991, df=228.216, p<.001$). 한국언론진흥재단(2019)의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65.5%의 청소년들은 뉴스나 시사 정보를 얻는 주된 매체로 모바일 또는 컴퓨터를 언급한다. 청소년들은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는 아니었다. 다수의 청소년은 사회 현안에 대해 관망자(spectator)로 머물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게 한다. 박윤경과 이승연(201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사회 이슈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타인의 의견을 듣는 불편함보다 자기 의견 말하기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공개적

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다소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근간으로 민주주의는 발전한다는 측면에서(김주환, 2005),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은 필수적이다. 의견표명의 자유와 의견에 대한 존중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제시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상쇄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사회이슈를 논하는 청소년들의 장이 다양한 공간 속에서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목소리 포럼(Youth Voice Forum)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참여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 여러 현안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제공되길 기대한다.

둘째, 사회이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에 있어서 이슈지식, 친구와의 사회이슈에 관한 대화 빈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학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또래집단인 친구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소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이 확대된 만큼,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룬다면 학생들이 참여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사회 내에서는 염려하며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모의선거교육을 금지했다(한겨레 신문 2020. 12. 06.).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대표를 결정하는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학교 안에서 모의선거교육이 진행된다면,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은 예비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분석하고 투표행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련의 선거기간을 역동적으로 맞이하며, 사회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가상적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다. 도리어 사회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교환되는 환경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주요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교실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이슈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간다(Stewart & Healy, 1989; Flanagan & Sherrod, 1998 재인용). 반장선거만 참여하던

청소년들에게 모의선거교육은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가는 발걸음의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교실개방성은 청소년의 공개적 의견 개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의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ICCS 2016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교실 분위기가 토론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장근영 외, 2018). 박윤경과 조영달(202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교실에서 사회이슈에 대한 학습과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학교 외에는 사회이슈에 대해 접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이슈에 대한 수업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며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들의 요구에 반응하며, 교실에서 사회이슈에 관한 자유로운 논의가 양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넷째, 교외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었다. 다양한 참여활동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4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 사회시민단체 등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 등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기관의 실천적인 노력 및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이슈에 대한 공적 의견표명에 있어 뉴스 미디어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Dalton(2002)의 인지적 관여모형에서도 미디어 노출을 하나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뉴스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또한, 미디어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인 의제설정(agenda setting)은 특정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증폭시킨다. 미디어는 개개인이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도 프레임하여 이슈에 대한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미디어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또 하나의 영향변인으로 추가되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이슈에 대해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며 상호 대화하는 것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허윤철, 박홍원, 2018),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초석이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내 목소리를 제시하는 것만큼, 타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노성중, 민영, 2009; 이윤주, 2010).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이견에 대한 수용적 태도까지는 살펴 보지 못하였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견에 대한 존중은 민주 시민의 또 다른 중요 자질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민주사회 속에서 모든 개인은 주권을 가진 존재이다. 개개인은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로 권력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는 경험은 청소년들이 더 참여적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다. 청소년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며 사회 이슈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 에서 2021년 3월 2일 인출
- 김동윤, 김위근, 조민규 (2015).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의견 지도자와 이용자의 의견 표명: 플랫폼과 이용동기, 정치성향과 의견 일치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3), 123-170.
- 김영인 (2017). 청소년 참여의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문화포럼**, 52, 37-71. doi:10.17854/ffyc.2017.10.52.37
- 김주환 (2001). 뉴스매체의 사용과 정치에 대한 사적 대화가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2), 86-116.
- 김주환 (2005).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행위로서의 정치적 대화. **언론과 사회**, 13(1), 75-99.
- 나은경 (2007).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의 상호작용: 온라인 사회연결망의 이질성과 오프라인 면대면 만남이 민주적 시민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4), 385-406.
- 노성중, 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의 경험과 정치참여의 관계 탐색. **한국언론학보**, 53(3), 173-197.
- 박윤경, 이승연 (2015). 초등학생의 정치·사회적 이슈 대화 및 토론 경험 분석: 청소년 시민성 교육에의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7(1), 89-120. doi:10.35557/trce.47.1.201503.004
- 박윤경, 조영달 (2020). 학교 수업에서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룬다는 것의 의미 이해: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시민교육연구**, 52(4), 63-99. doi:10.35557/trce.52.4.202012.003
- 박정서 (2012). 19대 총선에 관한 청소년의 정치적 대화와 매스미디어 접촉이 정치적 태도 함양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4(3), 1-28. doi:10.35557/trce.44.3.201209.001
- 오연주 (2010). 공공쟁점 중심 사회과 토론수업에서 학생들은 왜 말하지 않는가?. **사회과 교육**, 49(2), 121-136.

- 오연주 (2012). 공공 쟁점 사회과 토론학습에서 소극적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 증진 효과. **사회과교육**, 51(4), 195-209
- 이운주 (2010).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에서의 이견접촉과 논증유형이 청소년의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6(2), 239-270
- 장근영, 성은모,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V: IEA ICCS 2016-총괄보고서**(연구보고 18-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지원, 전자배 (2018).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시민의식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 45(2), 5-30. doi:10.22804/jke.2018.45.2.001
- 한겨레 (2020. 12. 06). **18살 선거권 1년 “투표소 ‘들러리’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965.html에서 2021년 3월 2일 인출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조사분석 2019-04).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혜경 (2010). 온라인 공론장과 오프라인의 대인/대중매체 공론장의 연계성: 트위터 이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3), 618-661.
- 허윤철, 박홍원. (2019). 필리버스터 시기 TV를 통한 이슈 접촉이 이슈 중요성지각과 대면/온라인 의견 표출에 미친 영향. **방송통신연구**, 105, 118-147.
- Checkoway, B. N., & Gutierrez, L. M. (2006). Youth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hange: An introduction. In B. N. Checkoway, & L. M. Gutierrez(Eds.) *Youth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hange*(pp. 1-9). NY: The Haworth Press. doi: 10.4324/9780203051726
- Dalton, R. (2002). *Citizenship Politics*. NY: Chatham House
- Flanagan, C. A., & Sherrod, L. R. (1998). Youth Politic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447-456. doi:10.1111/j.1540-4560.1998.tb01229.x
- Habermas, J.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저 1989 출판)
-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New York: UNICEF.

- Kim, J., Wyatt, R., & Katz, E. (1999). News, talk, opinion, ac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 361-385. doi:10.1080/105846099198541
- Pattie, C., Seyd, P., & Whiteley, P. (2004). *Citizenship in Britain: Values, participation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errod, L. R., Flanagan, C., & Youniss, J. (2002). Dimensions of citizenship and opportunities for youth development: The what, why, when, where, and who of citizenship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4), 264-272. doi:10.1207/s1532480xads0604_14
- Sherrod, L. R., Torney-Purta, J., & Flanagan, C. A. (2010). Handbook of research on civic engagement in youth.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book/10.1002/9780470767603> 에서 2019년 3월 1일 인출.
- Skoric, M. M., Teo, L. L. C., & Neo, R. L. (2009). Children and video games: addiction, engagement, and scholastic achievement. *Cyberpsychology & behavior, 12*(5), 567-572. doi:10.1089/cpb.2009.0079
- Stewart, A. J., & Healy, J. M. (1989). Linking individu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American Psychologist, 44*, 3M2. doi:10.1037/0003-066x.44.1.30
- Tocqueville, A. (1997) **미국의 민주주의** (임효선, 박지동 역.). 파주: 한길사. (원저 1835 출판).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opinion expression behaviors regarding social issues within online spaces

Chun, Jaba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opinion expression behaviors about social issues. In this article, the 2018 Survey on Youth Competencies Index,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and a total of 1,266 secondary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from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are less likely to express their opinion about social issues. Second, adolescents are likely to express their opinion when they perceive that they have more knowledge about social issues, talk frequently with parents and friends about social issues, and think the classroom climate for discussing social issues to be an open one. Third, social organization activities significantly affect adolescent opinion expression behaviors about social issu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rmation of safe public spheres and practical education regarding social issues are suggested. In addition, it is worth emphasizing that youth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groups is something that should be encouraged.

Key Words: expression of opinion, social issues, online space, youth participation, civic education

투고일: 2021. 3. 8, 심사일: 2021. 5. 4, 심사완료일: 2021. 5. 11

* Seoul National University